

예술가와 결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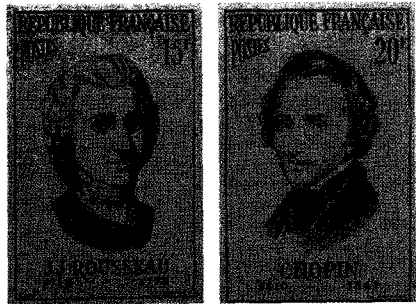
예병일(연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결핵의 역사

결핵은 인류와 함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질병이다. 기원전 5000~8000년 경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에서 결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기원전 1000년경의 이집트 미라에서도 결핵에 의한 척추질환이 발견되어 유구한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다. 뼈 이외의 인체 조직은 보존이 어려운 까닭에 다른 조직에서 결핵의 흔적을 찾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지만 뼈에 결핵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기원전 1000년경 발현된 인도의 문헌에서 폐결핵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고, 중국의 수나라 의학책에서도 폐결핵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 결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의사들도 폐결핵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



측되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이 공기를 통하여 전파됨을 처음 주장하였고, 로마의 빅토르비우스도 폐결핵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유사 이래 한시도 인류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결핵은 중세 시대를 거쳐 르네상스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였으며, 문명이 재탄생하던 르네상스기에는 여러 예술 작품에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핵환자들이 등장하곤 했다. 중세를 거쳐 근대 산업혁명 시기에 이르자 집단생활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에 의해 다른 폐질환과 함께 결핵 환자의 수도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

근대 유럽에서는 일반인들보다 국왕, 왕족, 귀족들의 결핵 유병률이 높았는데 이것은 당시 상류 사회 사람들은 집단적인 사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와 루소, 시인인 셸러와 키츠, 철학자인 스피노자와 칸트, 과학자 프리스틀리, 문화가 포우와 에밀리, 음악가 쇼팽 등 수많은 유명 무명인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후에야 결핵이 전염병이라는 사실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루소와 쇼팽(사진좌)
로버트 코흐와 그의 연구논문(사진 위)

이 알려지게 되었다

1865년 프랑스의 위망은 사람의 결핵 병소를 토끼에 주입시켜 토끼에서 결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결핵이 전염병임을 증명하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882년 코흐(Robert Koch, 1843~1910)는 결핵의 원인균을 분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인류가 결핵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결핵균 발견자 코흐

코흐에 앞서 파스퇴르(Louis Pasteur, 1812~1895)는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리스터(Joseph Lister, 1827~1912)는 미생물에 의해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멸균처리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경험적인 내용으로 토대로 사실을 유추한 것일 뿐, 실제로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세균이라는 미생물의 존재를 확실히 밝혀 준 사람이 바로 코흐이며, 의학전반에 걸쳐 인간이 세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점에서 코흐는 <세균학의 창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코흐는 1843년 프로시아(현재의 독일)의 한 탄광촌에서 광산기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66년 괴팅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함부르크에서 정신과 의사생활을 하면서 탐험가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보불전쟁이 발발하자 군의관으로 지원하였으나 일찍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모험가적인 기질을 접어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학생시절부터 짝사랑하던 프리츠에게 청혼한 그는 조용한 개업의사로 살아가자는 그녀의 조건에 동의하여 그녀와 결혼하였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생활에 따분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로하기 위해 아내가 헌비경을 선물해 준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